

巨野 특검·국조 드라이브 맨 여·야 '극한 대치' 전망

<거야>

尹정부 '국정동력 약화'...국힘, 총선 패배 책임론 속 세력구도 재편 민주, 친명 체제 강화...조국 대표 비 사법적 명예회복 '대선주자'로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권심판'을 선택하면서 향후 정국이 출렁일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넘어선 원내 1당을 차지하고,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까지 가세함에 따라 '거야' (巨野)와 집권 여당 간 '극한 대치'가 제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尹정부 내내 '여소야대' 의회로...범야권 장악력 확대=이번 총선에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8년까지 입법 권력을 쥐게 됐다.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에 이어 12년간 입법 권력을 쥐게 된 셈이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대통령 임기 내내 소수당에 머무르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직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까지 범야권이 190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은 103석에 그쳤다.

22대 총선 결과 범야권은 21대보다 의석을 소폭 늘렸을 뿐 아니라, 정치적 활동 반경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은 먼 총선에서 민심이 야당에 힘을 실어줬다고 판단해준다.

참패 성적표를 받아 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기조의 대전환을 요구받게 됐다.

국정과정 입법과 예산·인사권 행사에 큰 제약이 생기면서 조기 레임덕 (권력누수)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에 참패를 안겨준 민의를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총선 결과에 따라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인적 쇄신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2연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의회 지형을 확보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녹색정의당이 원내 정당으로 전락하는 등 군소정당들은 초라한 성적표를 안게 됐다. 양당의 기득권 체제가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野, 21대서 무산된 특검 재추진...與 이탈표 나올까=4·10 총선을 통해 범야권이 180석 (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함으로써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으로 각종 입법을 속도가 있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아래는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둥이법 (김건희 여사 추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상법 특검', '이종성 특검' 등 정부 실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각종 특검과 국정조사 드라이브를 걸며 여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 추진도 예고했다.

이들 법안이 처리될 경우 윤 대통령은 거부권 (재

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범야권이 재의결에 필요한 '3분의 2의석' (200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의결 과정에서 법안이 폐기되는 21대 국회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변수는 여권의 이탈표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경우 윤 대통령 거부권마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국회 재의결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폐기된 법안이 8개에 달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는 친윤 (친윤석열)계의 구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재의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온다.

◇與 후폭풍 속 세력 구도 재편 전망...野 친명 체제 강화할 듯

참패 성적표를 받아 든 국민의힘은 이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하는 등 향후 패배 책임론 공방과 함께 상당 기간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권 및 차기 대권 경쟁 과정에서 친윤계와 비윤 (비윤석열)계 간 대결 구도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당정 관계에서 당이 주도성을 키우면서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당정 갈등이 다시 표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으로 친명 (친이재명) 체제가 한층 공고해졌다.

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친명계가 다수 당선되면서 비명 (비이재명)계의 입지는 더 좁아졌다. 당장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범주류인 우원식·정재래 의원과 비명계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용진 의원 등도 당권주자로 분류된다.

대권 잠룡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국민의힘에서 한 위원장은 총선 참패로 일단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비주류인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국회 입성에 성공하며 당권·대권주자로 재부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 참패의 영향권에서 비껴나 있었던 만큼 당내 정치적 지분 확대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회에 입성하면서 차기 대권후보로 발돋움하게 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압승을 토대로 대권에 재도전할 동력을 확보했다.

당권주자인 김 전 총리와 임 전 실장, 박 의원을 비롯해 정세균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잠룡으로 분류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사실상 비사법적 명예회복을 이루며 대선주자로 뛰어올랐지만,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될 경우 대권 도전이 불가능하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광주 광산을 선거에서 패배하며 정치적 고비를 맞게 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진두지휘한 여야 대표 엇갈린 명암

민주당 이재명, 대권 도전 '청신호' 국힘 한동훈, 대국민 사과·사퇴

4·10 총선 결과, 여야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대표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두면서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파란불'이 켜졌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총선 다음날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와 공천 갈등의 오점을 뒤로 하고 자신이 진두지휘한 선거에서 크게 승리함으로써 대권 재도전에 필요한 발판을 확실하게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3월 대선에서 패한 뒤 같은 해 8월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잡았으나, 당 안팎으로 적잖은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 등 '사법 리스크'가 상존했고, 친문 (친문재인)계를 비롯한 비명 (비이재명)계의 견제도 적지 않았다.

총선을 앞두고는 대선후보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는 등 리더십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공천 과정에서는 '친명 (친이재명) 횡재, 비명횡

사' 논란이 거셌지만, 결국 선거에서 이기며 당을 자신의 친정체제로 바꾸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비주류로서 대선에 출마하고 당권을 잡았지만 당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던 그가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당의 체질을 '이재명당'으로 바꿔놓는 데 성공한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다시금 친명 지도부가 들어선다면 3년 뒤 대권 도전까지는 큰 장애물은 없다고 봐도 된다. 게 당 안팎의 시가지다.

다만 이처럼 당내 리스크는 사실상 이번 총선으로 완전히 정리됐다고 평가되지만, '사법 리스크'라는 외부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8월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에 당권을 넘기고 나면 다시금 전열을 정비해 대권 도전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발탁한 영입 인재 등 친명계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당내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학자 그룹 등 싱크탱크와 함께 '대권 수업'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친명 일색으로 재편된 당내 구도가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적으로 중도층 표심을 확보해야 하는 대선에서 기존 지지층만을 겨냥한 행보로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도 정당 득표율을 감안하면, 조국혁신당 '돌풍' 변수로 인해 민주당의 득표율은 26.69%에

불과했다. 이 대표가 향후 대권 재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내 통합에 공을 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4·10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립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존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제 책임"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김기현 당 대표가 사퇴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당 비대위원장에 취임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진 않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라 걱정을 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정치를 계속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며 향후 정치 행보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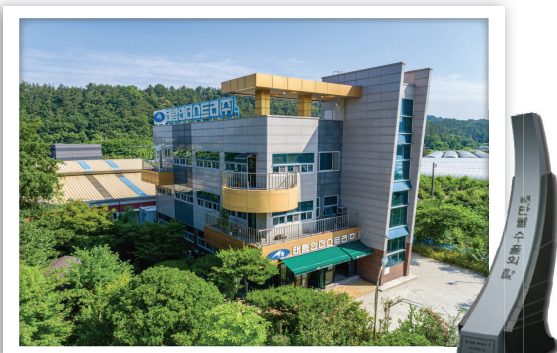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운영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첨가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업체 표창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